

**알리코제약, 2021년 매출액 1401억 원 기록...“전년 대비 12.2% ↑”**

- ▶ 전년 대비 매출액 12.2% 상승, 영업이익은 적극적 R&D 투자로 인해 43.6% 감소
- ▶ 외과 및 여성건강관리 신사업 투자 통해 특화시장 확보

**<2022-02-07> 전문의약품 제조기업 알리코제약(260660, 대표이사 이항구)이 2021년 매출액이 1401억 원, 영업이익은 6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 법인 15%) 이상 변경에 따른 것이다.

알리코제약의 매출액은 14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60억 원으로 43.6% 감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핵심 사업에 대한 지속적 R&D 투자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며 “알리코만의 특화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시설 및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법 개정에 따른 1+3법 시행에 대비한 자사 전환 품목의 임상개발 비용 증가가 영업이익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며 “임상 결과가 단계적으로 나오고 있어 조만간 그 결실을 볼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어 “꾸준한 매출액 증가는 R&D 투자의 유의미성을 보여준다”며 “영업이익 감소는 한 발 더 성장하기 위한 일시적 과정으로 여겨달라”고 전했다.

알리코제약은 2020년부터 R&D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외과 의료 기기와 여성 케어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 중이다. 여성 특화 사업의 경우, 지난 2021년 1월 여성특화 브랜드 ‘위민업(WEMEAN UP)’을 런칭하며 본격화하고 있다.

한편,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알리코제약은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저비용 고효율 영업망을 구축해 상장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전문의약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 ▲자체 생산 효율성 증대 ▲혁신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속해서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